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요한복음 강해

유일하신 그리스도 I

(요 1:5-8)

이종윤 원로목사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나 어느 부류의 피조물 가운데 있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동일한 것이 도저히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독특하고도 유일한 방법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요, 기독교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를 어려움 없이, 무슨 부딪힘도 없이 받게 되었으니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1. 기원의 유일성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요 1:15)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출생 기원이 아주 유일하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선재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선재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인간의 모든 출발은 사람이 나는 날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이 세상에 출생하신 그 해, 그 시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원은 신비롭고 유일하시고 독특하고 어디서 그 유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처녀가 낳은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요 8:56-58).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신 그 모습도 기이하지만 예수님의 기원이 아주 신비합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야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입니다.

2. 만복의 근원이 되신 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요 1:16)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은 수와 양에 있어서 완전하고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앞에는 ‘호 티’(영어로 because)라는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전치사가 우리말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15, 16절을 연결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경험론적으로 그리스도가 주신 좋은 선물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돈 백원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백만원 받는 것이 축복입니까? 혹은 아버지를 갖는 것이 축복 일까요? 아버지는 백만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삽니다. 이것을 일반은총이라고 하는데 건강, 재물, 지식, 우정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님 자신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집에 시집가면 복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복이지만 secondary 두 번째 복, 차선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복은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이십니다. 안 가진 것 없고, 부족함이 없이 충만히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마 7:7) 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바로 부자입니다. 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구할 자격이 있는데 왜 가난하다고 합니까? 우리는 가난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의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모셨으니 세상에 행복자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이켜 보면 아슬아슬하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그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충만하고 넉넉하게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원하시는 방향으로 연출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다음 주 계속)



“주를 찬양하고 신뢰하라”

예배 순서

인도 : 가족 중 어른

목도	다함께
성시 시편 133편 1-3	인도자
찬송 589장	다함께
기도 (또는 사도신경)	다함께
성경봉독 시편 33:1-5	인도자
메시지 “주를 찬양하고 신뢰하라”	인도자
찬송 559장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시편 33:1-5

- 1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 2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 3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 4 여호와와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 5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미여 세상에는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요 그들의 역사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이라면 누구나 불러야 할 찬송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일은 모든 성도의 의무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특별히 추석명절을 맞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추석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오는 목요일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모처럼 한 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추석.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모범을 제시한다.

1. 무엇으로 찬양해야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새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열 줄 비파 즉 각종 악기와 각양 은사를 따라 찬송해야 합니다.(느 12:27)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깊은 음으로, 높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높은 음으로, 넓은 은총을 받은 사람은 진폭이 넓은 음으로, 평범한 은혜를 받은 자는 중간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찬송은 모든 회중이 함께, 힘차게, 겸손히, 박자와 고저, 장단을 맞추어 영으로 부르라고 권면했습니다. 찬송하는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향기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2.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의 일은 모두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맞는 날보다 평안한 날이 더 많은 것은 하나님 사랑의 승리입니다. 공의로우시며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를 경배해야 합니다. 그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같은 눈으로 그의 백성을 감찰하시며 그의 눈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십니다. 또한 그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그늘에서 건지시며 일용할 것을 풍성히 주시사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온 자들이요 죄인이었으나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좋은 것을 필요를 따라 넉넉히 주시니 우리는 큰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3.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우리는 옛부터 도움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스펀전의 주석에는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파선 지경에 이르렀으나 풍랑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은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년은 의아해하는 무리들에게 “이 배를 지휘하는 선장은 내 아버지며 나는 그를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함으로 감사의 제목이 늘어가는 복을 모두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취업사관학교 호산나대학 -

애견직업훈련센터 개소

호산나대학은 지난 9월 4일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애견직업훈련센터를 개소했다. 애견직업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과 동물을 매개로 하는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동물매개치유전문가 양성, 애견관련 실무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등 발달장애인의 진로직업체험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 가정에 방치된 반려견의 정기적인 이동목욕서비스와 보건위생에 동참하므로 독거노인 고독사 지킴이를 통하여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서울교회가 설립한 호산나대학은 2006년 개교되어 어느덧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개교 당시 사무자동학과와 서비스학과의 2개 학과로 시작한 호산나대학은 최근 노인 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또한 애견 1000만 시대라는 사회적인 변화와 4차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발달장애인의 유망직종인 노인케어학과와 뷰티케어학과, 그리고 애견케어학과를 신설하여 총 5개 학과를 운영 중이다. 또한 학생들은 전문직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며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동능력, 문서실무사, 바리스타, 반려동물관리사 등을 비롯하여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에 도전하여 총 58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정규직으로 26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날 개소식에 참석한 이종운 원로목사님은 “하나님은 인간을 우연히 지으신 것이 아니다. 풀한 포기, 참새 한 마리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지으셨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도 이 세상에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 아무리 발달장애인이자 해도 그들은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돕는다는 것은 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겠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간 학부모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교사들의 사랑과 책임이 오늘의 호산나대학을 만

들었다. 이제 호산나대학의 졸업생들은 그간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받은 만큼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당연한 국민으로 자립하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번에 개소된 애견직업훈련센터 설립은 국제라이온스 협회 국제재단과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공익법인 운울에서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였고, 강동 구청과 가평군 노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가평군내 독거노인가정과 노인 그룹홈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찾아가는 동물매개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가평군 내 독거노인 가정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예수의 집과 가평효사랑요양원에 매월 1회 찾아가는 동물매개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효를 전하고 있다.

바라기는 비록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꾸준히 준비하여 사회에 기여하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며 사회인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호산나대학 학생들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 땅의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이와 같은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한다.

서울교회는 2003년 당시 예배당을 건축하고 복음 전파를 위한 수많은 국내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수 사랑과 비전을 가지고 설립한 호산나대학이 낱알이 발전하는 모습과 학생들의 밝은 미소를 보며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뿌듯하고 뜨거운 감사가 차오른다. 이에 서울교회 온 성도들은 호산나대학의 학생들과 학부모님, 학교 관계자와 교사진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린다.

취재 허숙 권사(편집부)



나의 하나님

이 가을엔

한상준 집사 (9교구,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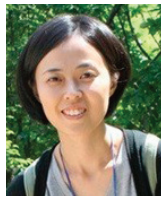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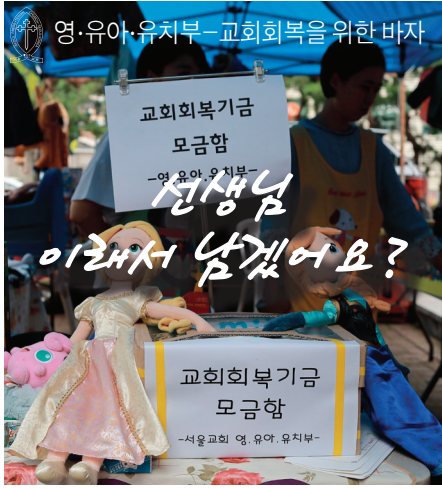
이 가을엔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푸른하늘 군데군데 피어있는
몽게 구름과
망망 대해에
외로히 떠있는 돛단배같이
표류하는 삶 속에서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이 가을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눈먼자와 같이 방황하는..
엄마 잃고 길을 헤매이는
어린이와 같은 나약한
삶을 사는 우릴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가을엔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서늘한 바람속에
알알이 영그는 오곡백과의
결실 하나하나에 섭리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이 가을엔
승리케 하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두 손을 잡아 일으켜 주사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안재희 집사 (유아부 교사)

바자 물품 중 하나를 집어 든 학생이 얼마냐고 물어 정해진 가격이 없다고 하자 모금함에 현금을 하며 저에게 한 얘기였습니다.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바자가 주일에 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주일성수에 방해되지 않으려 최소한의 시간에 모금으로 진행되었

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이 걱정하는 교회를 향한 마음은 교회회복을 향한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듯 바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 물품들이 들어오고 이런 모습을 통해 진행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또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바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바자에 나온 물품들이 필요한 가정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은 또 다른 모습으로 각 가정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짧은 시간 동안의 바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현금이 모아져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며 한마음으로 기뻐하였습니다.

물품을 쌓아놓느라 더 좁아진 장소와 주일에 머무르시던 장소가 없어져 불편했을 상황을 양해해주시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을 정성스레 내 주신 분들, 아이들이 선택하고 현금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부모님들 여러 모습으로 교회의 회복을 바라며 힘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가득한 서울교회로 속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박동식·유하영 김은숙 전도사 황명하 오후근 감우균·김연화1 정완진·김희순 이선희 영·유아·유치부 이영조·이영자 소망부 윤요섭·안재희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동 정

- 금주의 식사 : 이우진 집사 김일순 권사 가정 교회제공 (범사에 감사드리며) 비빔밥
- 반찬 제공 : 호박샐러드(무명의 성도)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판결하여 주옵소서.
3.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내외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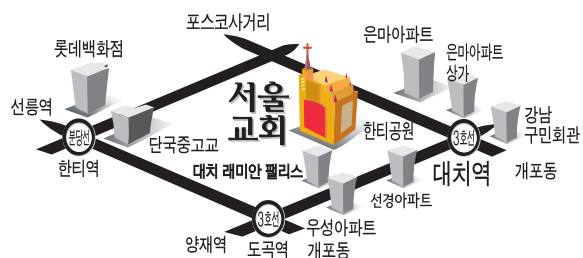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9월9일	월	단 1-3		느 8-13	
9월10일	화	단 4-6		에 1-10	
9월11일	수	단 7-9		욘 1-7	
9월12일	목	단 10-12		욘 8-14	
9월13일	금	호 1-8		욘 15-21	
9월14일	토	호 9-14		욘 22-30	
9월15일	주일	을 1-3		욘 31-35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